

“오늘의 교육 지식전달에 치우쳐”

교육의 잠재적 기능과 이심전심

교육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그 하나는 표면적 기능(表面的機能)이며, 다른 하나는 잠재적 기능(潛在的機能)이다.

표면적 기능이라 함은 교육에서 의도한 바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를 말하며 주로 언어, 문자에 의하여 가르쳐지고 가시적(可視的)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반하여 잠재적 기능은 교육에서 의도한 바가 없거나 표면적 기능 속에 숨겨져 있는 교육기능으로서 언어나 문자를 사용하지 않으며 비가시적(非可視的) 결과를 초래한다.

종래 교육에서는 교육의 표면적 기능만 강조하여 왔다. 교과를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 교과를 가르치기 위한 수단인 언어와 문자이고, 성적이라고 하는 가시적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배우는 것은 지식뿐만 아니라 시간 지키는 일, 질서 지키는 일, 자신을 갖는 일, 질투하는 일, 열등감을 가지는 일 등도 배우게 된다. 이러한 교육의 잠재적 기능은 언어나 문자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교행사, 문화종교, 교사의 묵시적(默示的) 영향 등에 의하여 배우게 되며 그 결과는 비가시적(非可視的)이다.

종래 교육에서는 표면적 기능만을 강조

김중서박사가 쓰는

불교와 교육 <18>



그림 · 이준석

불교의 개념을

교육학에 적용하면

禪은 잠재적기능

教는 표면적기능

하였지만 교육학적 사고가 세련됨에 따라 최근에는 잠재적 기능도 함께 강조하게 되었다. 교육의 올바른 길은 표면적 기능과 잠재적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에 있다.

불교에서는 흔히 선교일치(禪教一致)를 주장한다. 이 때 선(禪)이라 함은 부처님의 마음을 지칭하며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불도(佛道)이다. 이에 비해 교(教)는 부처님의 말씀을 뜻하며 주로 언어와 문자에 의하여 습득하는 불도를 말한다.

위와 같은 불교의 개념을 교육학에 적용하면 선(禪)은 교육의 잠재적 기능에, 교(教)는 교육의 표면적 기능에 시사점을 던져 준다.

불교에 있어서 선교일치(禪教一致)를 참구(參究)한다면 교육에서는 교육의 표면적 기능과 잠재적 기능이 상보적(相補的)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을 떠올리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미 교육의 양태기능을 아득한 옛날부터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심전심(以心傳心)의 가르침이다. 이는 교육의 잠재적 기능의 측면에 관한 역설(力說)이다.

이심전심은 염화미소(拈華微笑)의 고사(故事)에서 비롯된다. 염화미소란 세존께서 영산(靈山)에서 설

법을 하실 때 아무 말씀도 안하시고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니 그 뜻을 아는 자가 없었으나 오직 가섭존자(迦葉尊者)만이 그 뜻을 알고 미소하였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불법이 전달됨을 말하며 세존염화(世尊拈華), 염화파란(拈華破顏), 가섭미소(迦葉微笑)라고도 한다. 말이 끊어진(言語斷) 상태, 문자를 떠난(不立文字) 상태에서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불법을 전함을 염화미소라고 한다.

이 심전심은 깨달은 내용을 언어나 문자를 매개로 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함에 있어 연유하였으나 일반적으로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며,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며 말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넓고 가벼운 뜻으로 해석한 이심전심이 곧 교육의 잠재적 기능이다.

교육의 잠재적 기능 중 교사의 마음 가짐이 학생들에게 은연중에 전달됨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전달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에 걸쳐 있다. 교사가 부지런하고, 봉사적이며, 자비스럽고, 친절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학생들도 이와 같은 마음을 본받게 되며 교사가 금전 제일주의이고, 이기적이며, 게으른 마음 가짐이 있으면 학생은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다.

나는 대학에서 오랫동안 교편을 잡았는데 언제나 강의시간 전에 교실에 들어가 보면 약 3분의 1 정도 되는 학생만이 앉아 있었는데 시간이 되면 학생수는 관계없이 강의를 시작하였다. 강의를 시작한 지

“교과공부 못지않게 이심전심교육 중요” 잠재적기능은 도덕·정서발달에 직결

10분정도 지나야 비로소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리를 메꾸었다. 출석은 강의 끝난 후에 점검하였다. 나는 한 번도 학생들에게 강의 시작전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 바 없다. 그러나 학기말이 되면 거의 모든 학생이 강의 시작전에 착석하고 있었다.

최근에 대학교수가 된 재자가 찾아와 나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한 바 있다.

선생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만 특히 강의 시작 전에 강의실에 들어가는 것은 가장 강하게 배운 내용이며 저도 이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심전심(以心傳心)의 교육은 말과 글에 의한 가르침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

원래 교육의 잠재적 기능이라는 개념은 사회학자인 머튼(Merton)의 사회제도 관찰에서 비롯되었다. 머튼(Merton)은 사회제도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결과를 표면적 기능, 관찰할 수 없는 결과를 잠재적 기능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미국의 남서부에 있는 아리조나주의 원주민인 호피(Hopi) 인디언족은 심한 한발이 오면 기우제를 지내는 풍습이 있다고 한다. 비를 내리도록 해달라고 하늘에 비는 의식이다. 근대 과학의 상식에서 보면 호피족의 기우제는 하나의 미신이나 전통적 타성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기우제가 비를 내리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며 비를 내리게 하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기우제는 당연히 사라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피족의 기우제는 계속되고 있다. 표면적 기능의 관점에서 보면 기우제가 하나의 미신에 불과할지 모르나 잠재적 기능의 관점에서 보면, 기우제는 가뭄으로 인하여 들뜬 민심을 가라앉히고 부족원간의 집단외식과 단결을 강화해 주는 기능을 한다. 표면적 기능의 관점에서만 보면 비합리적이고 미신에 불과한 기우제가 잠재적 기능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의미로 관철되고 해석된다.

위의 예에서 잠재적 기능은 호피 인디언 부족의 지도자들이 바라고 원하는 바였을 것이다. 즉 부족 지도자들의 마음이 기우제라는 행사를 통하여 은연중에 부족원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것이다.

이와 같은 예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제사(祭禮)를 지내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제사의 표면적 기능은 조상숭배에 있지만 잠재적 기능은 가족간의 화목과 예절형식의 중요성의 가르침에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잠재적 기능은 어른들의 마음이 가족에게 전달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위에서 든 예는 주로 잠재적 기능의 긍정적인 측면의 발로(發露)이지만 잠재적 기능은 교육의 부정적 측면 즉 역기능으로서도 작용한다.

부모, 교사, 사회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바람은 그 가르침과 바람의 정반대의 기능을

수행하는 수가 있다. 즉 전도(顛倒)된 이심전심이다.

예를 들면 어떤 여고생이 다음과 같은 졸업소감을 밝혔다고 하자 “女高를 졸업한다는 것은 참으로 서운한 일입니다. 낭만과 꿈으로 가득찬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시련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극히 소중한 수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는 일입니다.” 초등학교에서 6년간, 중학교에서 3년간, 고등학교에서 3년간, 계12년간에 걸쳐 교사는 수학을 열심히 가르쳤지만 이 학생은 그 동안 “수학은 싫은 것, 나는 수학을 공부하는 일생하지 않겠다”는 것을 배웠다. 이 학생은 곧 전도(顛倒)된 이심전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이심전심을 교육학적 관점에서 해석해 보았다. 교육의 잠재적 기능이 특히 강조되는 까닭은 오늘날의 교육이 언어와 문자를 매개로 하는 지식 기술의 전달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이심전심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의 잠재적 기능은 인간의 도덕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직결된다. 특히 전도된 이심전심, 즉 교육의 부정적 측면의 잠재적 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심전심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학교보다 가정에서 더욱 함양할 교육의 과제이다.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생활불교용어



그림 · 박구원

타인으로부터 곤욕을 치르거나 괴로움을 받는 것을 “시달림을 받는다” “시달림을 당한다”라고 말한다. 일은 남이 벌려 놓고 시달림을 영똥한 사람이 받는 때가 많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쓰이는 ‘시달림’이란 단어는 불교의 ‘시달림(尸陀林)’에서 시달림이었다. 시달림은 방어의 시타바나(Sitavana)를 음역한 것. 방어 시타는 ‘차가운(寒)’의 의미이고 바나는 숲(林)의 의미여서 한림(寒林)이라고 번역해 쓰기도 한다.

<사분율·四分律>에 따르면 시타바나는 중인도의 마갈라국 왕사성 북쪽에 있는 숲이었다. 이 숲은 요점말로 공동묘지로 성중에 사람이 죽으면 이 숲 시타바나(시달림)에 버려졌다. 따라서 시달림은 공포의 장소였으며

시달림

尸陀林서 시원…염승등 장의절차

‘곤욕을 치른다’는 뜻으로 쓰여

질병이 무성한 곳이었다. 후일 나라에서 이 시달림에 악성 죄인들을 추방시켜 살게 했다고 한다. <사분율>에 등장하는 시달림은 고행의 장소로 자주 택한 생매장터다.

요즘을 우리나라 불가에서는 사망한 사람을 위해 염불하고 축원하고 때로 설법하는 것을 ‘시달림 법문’이라고 한다. 시달림은 사람이 죽어 염승(殮葬)을 하기 전과 염승 이후 발인(發引), 발인에서 화장, 화장에서 매장까지로 구분된다. 사람이 죽은 직후일 경우 스님은 오방례(五方禮)를 한다. 오방례란 동·서·남·북·중앙의 다섯 방위에 계신 부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오방례가 끝나면 ‘무상계(無常界)’를 통속해 생사 무상의 원인과 결과를 밝힘으로써 가진 이는 물론 상주들의 마음을 생사초월 단계로 승화시켜 준다.

이렇듯 장의 절차 구비구비에 스님은 법문을 해준다. 이를 통틀어 시달림이라고 한다. 장의 시달림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늘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일을 “시달림을 받는다”고 표현했을까. 따라서 시달림은 공동묘지의 공포와 죽음 직후의 슬픔을 중생의 생사초월을 위한 큰 법문으로 승화시킨 숭고한 뜻이다.

참고 안길모 “이판사관 아담법석”

감·로·심·장·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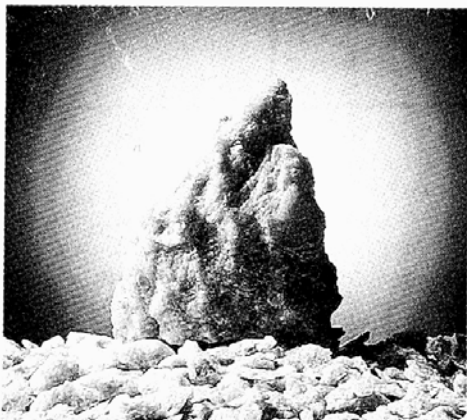
●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돕는 순수봉사단체입니다 ●

심장병·안면기형·안과(백내장, 녹내장)

후원문의: ☎ (0591) 747-0106

生光石은 자연입니다.
生光石은 원석 그대로입니다.
生光石은 자연이 배운
마지막 축복입니다.

자연의 파장 生光石, - 건강과 생활환경을 지켜줍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와서 자연에서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자연에서 살지 못하고 독성을 내뿜는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마치 못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기에게 소꿉보따리 어머니 것이 좋듯 사람에게서는 자연의 정기가 좋습니다. 生光石은 강원도 영월에서 채광된 가공되지 않은 신비의 자연 그 자체입니다.

● 헬스톤 100

100% 生光石으로 만든
◎ 헬스톤 100으로 시공된 집은

- 건강** 가족 모두에게 건강을 드립니다.
- 혈액순환과 신진대사 촉진 · 체질개선
 - 미용효과 · 전자파로부터 보호
- 환경** 상쾌한 실내공기와 쾌적한 생활 환경을 드립니다.
- 시멘트 독성제거 · 실내 공기정화
 - 곰팡이 방지 · 균열 방지
- 위생** 철저한 생활위생을 보장합니다.
- 곰팡이 서식방지 · 벌기 방지
 - 해충 퇴치 · 피부질환 방지 및 치료
- 경비** 헬스톤 100의 시공, 경비를 되돌려 드립니다.
- 고온의 체감온도 · 우수한 열전도율
 - 축열 효과 · 난방비 절약

● 생광석 108염주

- ◆ 생광석 108염주로 부처님 명호를 염하시면서 기도하시면.
- 1.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기도 원을 부처님께서 감응하여 주실 것이며
- 2. 하나의 마음으로 부처님을 염승하시면 어떠한 어려운 일도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며,
- 3. 늘 지니고 다니시면 부처님이 함께 하시며 보살과 주실 것이며
- 4. 내 마음의 심성을 밝혀 선한 마음을 가지시면 그곳이 곧 부처님 계신 법당이며
- 5. 생활속에서 작은 복을 갖는 것이 부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 ◆ 생광석 108염주를 늘 몸에 지니시면.
- 1. 손에 쥐고 기도하시면, 손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지며.
- 2. 목에 거시면, 목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집니다.
- 3. 어깨 부위에 올려 놓으시면, 어깨 결림이 현저히 줄어들며,
- 4. 팔목이나, 팔에 감으시면, 팔목이나, 팔의 통증을 큰 도움이 되며,
- 5. 피로가 훨씬 덜하고, 기분이 상쾌하며,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 베게(학생, 사무직근로자, 노인, 애연가, 애주가)

1.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상쾌하다.
2. 뇌의 혈액순환과, 대사작용을 촉진시켜 잠을 푹 잘 수 있다.
3. 불쾌한 머리 냄새를 없애 준다.
4. 상처가 잘 아물고 머리결을 건강하고 부드럽게 한다.
5. 고개가 부드럽고 유연해진다.

● 방석(한곳에 오래 앉아 있는 분, 주부, 자가운전자)

1. 새포를 황성화시켜 피로회복을 돕는다.
2. 배설기관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시킨다.
3. 불쾌한 냄새를 없애 준다.
4. 복통이나 불편한 부위에 올려 놓으면 좋은 효과가 있다. (따뜻하게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5. 자동차의 운전석과 조수석에 놓고 앉으면 차내의 담배 냄새 등 불쾌한 냄새를 없애고, 차내 공기를 맑고 쾌적하게 하며, 장시간 운전하여도 피로감이 거의 없다.
6. 여름에 오랫동안 한곳에 앉아 근무를 해도 허프의 땀이나 사타구니의 축축함이 없고 쾌적하다.
7. 장기간 사용하면 치질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
8. 방석(특)을 3개 연결하면 건강매트로 사용할 수 있다.

그외에 냄새제거, 수족관 환경유지, 피부미용, 혈관의 건강성, 난초·화초재배용 生光石이 있습니다.

● 韓國 生光石 허리벨트

한국 생광석 허리 벨트는, 사람의 세포 운동 파장인, 936 마이크로톤의 세포 황성 에너지를, 실 생활 온도에서, 효과적인 방사를 하는, 생광석 제품으로, 허리 부위의 세포를 황성화 하고, 혈액 순환과 신진 대사를 촉진시켜, 허리결림,

허리 통증등과 생리통 등에 큰 도움을 주며, 허리 보호에도 좋습니다.

허리를 미리 미리 보호하십시오.
허리가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분들께 권합니다. ◆

1. 혈액 순환과 신진 대사 장애에 의한, 허리 결림이나 통증이 있으신 분
2. 아랫배가 차고, 소화가 잘 안되시는 분
3. 앉거나, 선 체로 장시간을 지내야 하는 분
4. 출산 후의 여성, 생리통이 있는 여성
5. 허리를 보호해야 할, 50대 이상의 남·여
6. 허리가 비만하고 허리가 유연하지 못한 분
7. 허리를 다치기 쉬운 스포츠 맨, 또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
8. 무거운 짐을 지주 들거나, 서서 일을 많이 하시는 가정 주부 또는 선생님
9. 허리를 고정한 채로 오래 있어야 하는 운전 기사, 뷰티랑 등등.
10. 평소 소홀히 하기 쉬운 허리, 허리는 나를 사람답게 서 있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나를 지켜주는 대들보입니다.

KSC 한국생광석주식회사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주문리 12번지
TEL 서울: (02) 737-0695
대구: (053) 422-6661~2
창원·마산: (0551) 63-7296
진주: (0591) 53-5494